

남성성 복원 외치는 '남자'에 관한 책

여성학 이어 남성학도 제 목소리...아직은 번역서가 대부분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며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이원론적 사고 체계. 이것이 지나친 극단론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두고 굳어져온 이같은 사고방식으로 인해 人間事는 많은 모순구조를 잉태해왔다. 이런 생활에 먼저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여성으로서 그들이 펼친 여성해방운동은 일반에 익숙해진지 오래다. 그러나 '남성해방운동'이라는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소함을 느낀다. 같은 남성들이라도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부합리한 억압을 떨쳐 내겠다는 이 노력에 "도대체 우리가 해방해야 될 게 뭐있어?"라며 의아해 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물론 '남성해방운동'이란 말은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신운동·신용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에도 드물지 않게 번역·소개되어 독자들의 시선을 모으는 남성들의 삶과 고민에 관한 외국저술들은 이 운동이 우리사회에서만 낯설 뿐 이미 '고백운동'처럼 조용하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兩性이 함께 굴레를 벗는 '인간해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페미니즘운동은 이미 그 자체에 '남성해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남자는 울 수 없는가?"라는 많은 함의를 담은 이 물음은 페미니즘의 화두였듯 곧 남성해방운동의 화두이기도 하다.

“남성도 가부장제 사회의 피해자”

'남성위기관-11인의 독백'이란 부제가 붙은 '우리는 남성해방선언'(기원전)은 이 신종운동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현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미국사회 남성들의 허심탄회한 고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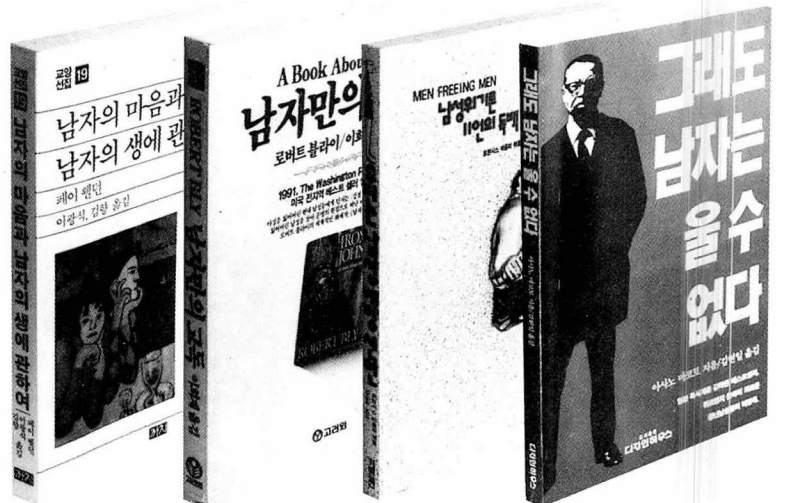
콜롬비아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 이혼을 계기로 일 중심의 생활을 청산하고 美남성해방운동의 선두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프란시스 바움리(프리먼 대표)가 엮은 이 책은 '남성의 역할' '남성다움의 실체' '남성에게 부과되는 억압' '남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남성의 性' 등 여성운동에서 물어졌던 물음들과 꼭같은 질문들에 대해 답안을 마련한다.

"성차별 사회에서 기득권자인 남성들이 왜 해방선언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의 필자들은 남성다움의 이데올로기가 인간본성에 기초해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

'운다'는 것. 그것은 왜 여성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남성들에게는 금기의 것으로 여겨졌왔는가. 여기에 대해 이 책들은 '남자다워야 한다'는 신념이 그렇게 교육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런 주장의 한켠에선 여성들의 아우성에 위축되고 산업사회의 견인차로 피로만 남는 남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도 상당량 차지한다.

야 할 남성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직업을 갖고 싶어도 제도가 가로막혀 못하는 여성이 있는 반면 사회의 법칙에 의해 일할 것을 강요당하는 남자들이 있고, 인생을 무료하게만 여기는 여자들에 대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잃어지고 사는 남자가 있다." '맨즈 리브'에 대해 쓴 리처드 하디스는 "남자들은 이른바 성역할의 해독으로 인해 단명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성역할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점에서 남성해방운동은 여성운동과 공감대를 이루지만 그렇다고 페미니즘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닌 점이다. 오히려 "여자를 착취하는 것에 의해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해왔다는 부정적인 남성이미지만 강조해왔다"며 여성들은 "약자라는 위치를 이용해 여성억압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왔고, 그 속에서 남성도 피해자"라고 역설한다.

디자인하우스 출판부에서 나온 「그래도 남자는 울 수 없다」(아사노 마코토)는 한 정신과의사의 눈을 통해 성공을 향해 쾌속질주하다 어느 한순간 무너져내려 병원에 실려온 중년남성들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이 책의 상담대상인 12명의 남성들은 컴퓨터회사의 시스템엔지니어에서부터 신문기자, 증권회사 부장대리, 노동조합 집행위원, 부동산회사 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온 성공적인 비즈니스맨들이었다.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그들의 외면은 책임감과 완벽주의, 냉혹함 등으로 무장되어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목을 죄어오는 긴장감"이나 "추월당하고 있다는 초조감" 등에 의



현대남성들의 '고민'에 초점을 맞춘 몇권의 책들.

해 자의나 타의로 삶의 궤도에서 일시정지, 또는 영원한 이탈을 하게 된다. 약물을 삼습적으로 복용하거나, 정신을 잃거나, 알콜에 중독되는 등 스러지는 순간과 양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삶을 곧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만 여겼던 이들에게 뒤쳐짐은 삶의 전적인 실패로 받아들여진다. 가까운 동반자인 아내한테서 위로받게 되기는커녕 무능력한 남편 취급을 당함으로써 더욱 설곳을 잃게 된다. 저자 마코토는 비즈니스맨들의 내면적 고뇌를 그들 개인의 결함이나 상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들을 둘러싼 제관계, 즉 아내, 부모, 직장동료, 상사, 사회적 관점 등을 함께 포착하여 서술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소외적 폐해를 가장 심각하게 감당해야 하는 성공한 남성들의 고뇌를 리얼하게 보여준다. "우리들 대부분이 직업인으로서 유능해지기 위해 애쓰는 것에 비해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에는 너무 등한한 채로 살고 있거나 않은지, 경쟁사회가 망가뜨리는 것은 결국 우리 개개인의 가정이기도 하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영국의 노예류작가 페이 웰던의 소설 「남자의 마음과 남자의 생애 관하여」(까치)는 연애에서부터 결혼, 이혼과 재혼을 거쳐 노년에 이르는 한 남자주인공의 삶을 추적하면서 제목 그대로 남자의 내면세계와 삶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남자'에 관한 소설. 권위의식과 허세, 우월감과 야심을 고루 갖춘 인물 클리포드가 개성적인 여성 헬렌과 만나 결혼, 서로 사랑하고 팽팽히 대립하다 결국 이혼,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결합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 소설에서 작가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남성의 특성을 요약한다. "남자는 어쩔 수 없는 로맨티스트이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랑'을 찾아야 할

때, 흠잡을 데 없는 '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무조건적인 애정을 쏟아부을 수 없는 자신을 탓해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흠을 들춰내려 한다."

남성이란 성의 특성, 그들의 속성, 그들의 외로움과 극복을 드러내는 앞서의 책들에 비해 미국의 작가 로버트 블라이의 「남자만의 고독」(고려원)은 남성 내면의 고독한 풍광을 담담하게 드러내면서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문명의 원점으로 떠나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을 것을 독려한다. "끊임없는 경쟁속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아내로부터 비난받고, 아들에게 불신당하는 현대남성들에게 바친다"는 이 책에서 작가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인도의 시바,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에니미즘에 나오는 야성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산업사회속에서 잃어버린 남성상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제시, 남성들의 용기를 북돋운다.

현지의 인기업고 조용히 한국상륙

소설이나 산문, 임상일지 등 써어진 형식은 다르나 이들은 남성들의 '현재적 문제'를 진솔하게 드러내면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독서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나 '美 전지역 베스트셀러 1위' 등과 같은 현지에서의 붐이 국내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런 종류의 책이 한꺼번에 출간되거나, 중년남성의 일상을 담은 기업광고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신용어·신운동이 펼쳐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 정혜옥 기자